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이 훈 구[†]
연세대 심리학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를 조감하였다. 이 연구 중 비교집단이 있고 심리학적 요인의 양적 측정이 있는 연구만을 선정했다. 그 결과 한국에는 두 개의 논문만이 발견되었다. 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외국논문은 92개가 있었는데 이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한국연구의 결과는 모두 이혼이 자녀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사회성은 초등학교집단에서는 영향을 준 반면 중등학생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연구의 경우는 이혼이 자녀의 일곱 가지 안녕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국내 연구와 미국의 연구를 서로 비교했고 이외에 앞으로 국내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를 토의했다.

주요어 : 이혼, 이혼률, 자녀의 성격

[†] 교신저자 : 이훈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oonkoo@yonsei.ac.kr

그간 한국에서의 이혼문제는 강 건너 불이었다. 이는 가정가치를 강조한 유교문화의 영향,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 이혼녀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등의 원인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혼율 증가율이 OECD국가 중 최고여서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이혼율)은 지난 47년간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2002년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이 해의 이혼건수만 145,324였다(통계청, 2002). 이혼은 명암이 공존하는 사건이다. 부부가 불화하면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준다.(이훈구, 2001) 이런 점에서 이혼은 부부가 불행한 결혼을 끝맺고 재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면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가정파탄으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물론 자녀의 원치 않은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이 주는 영향에 관해 자세한 내막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의 급증하는 이혼이 과연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 국내외의 논문을 개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외국문헌보다 국내의 연구를 조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는 가정학, 사회복지학에서 주로 다루어 왔고 대개 이들 연구는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심리학 쪽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연구가 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몇 편의 개관논문(김태련, 2003; 이훈구, 2003; 채규만, 2003)과 한 차례의 심포지엄이 있었을 따름이다(시민회의 심포지엄, 2003).

이 연구에서는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적 잘 통제된 연구만을 골라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혼이 주는 영향을 보다 과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Glueck & Glueck(1950)의 것으로 이들은 이혼가정을 결손가정으로 취급하면서 이혼이 청소년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그 후 Glueck & Glueck가 만든 청소년 비행예측척도의 한 요인으로 이혼가정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한쪽 측면의 결과만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청소년비행 중 이혼가정출신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였다면 이것은 편중된 조사이다. 이혼가정출신 중 정상 청소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가정이 자녀에게 주는 이론을 대별하면 크게 3가지가 있다(Amato & Keith, 1991). 첫째 아버지의 부재이론, 경제적 불리 이론, 그리고 가정갈등이론이다. 먼저 외국의 연구결과를 조감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외국이 오래 전부터 이혼이 사회문제화 되어왔고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의 역사가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행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의 연구결과

Amato & Keith(1991)는 미국 및 기타 유럽국가에서 행한 이혼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엄선하여 Meta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혼에 관한 연구 중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택한 것만을 엄선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연구를 선정한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심리학 요약(Psychological Abstracts), 사회학 요약(Sociological Abstracts), 사회과학 색인(Social Science Index), 기타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개관논문에 기재된 문헌 등을 찾아 이 연구의 주제에 부합한 논문 92개를 뽑았다. (미국 및 유럽국가) 논문의 4가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생긴 편부모 가정의 자녀와 통제 집단(정상가정의 자녀)이 포함된 연구, 2)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양적 심리적 안녕 측정치가 있는 것, 3) 이혼이 주는 효과의 크기를 최소한 한가지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식으로 자료가 수집된 것, 4) 성인이 아닌 대학생 이하의 자녀에 국한함. 92개의 독립적 연구에 포함된 자녀 수는 13,000명이 넘었다. 선정된 연구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8개 영역이 있었다. 1) 학업성적, 2) 품행, 3) 심리적 적응, 4) 자아개념, 5) 사회적 적응, 6) 모-자 관계, 7) 부-자 관계, 8) 기타. 조사내용의 결과를 Amato & Keith(1991)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혼가정의 자녀는 비교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았다. 이혼기간의 경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살펴봐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재빨리 극복하고 더 이상 부정적 영향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지 받지 못했다. 즉 조사한 여덟 개의 영역 중 기타를 제외한 7개 영역 모두에서 이혼가정의 자녀의 행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이 주는 효과의 크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 변인은 품행과 부-자 관계였는데 이들 변인의 평균효과크기는 일반가정과 이혼가정간의 1 Standard Deviation의 1/4였다. 자기 통제와 사회적 적응의 평균효과크기는 두 집단 간의 1 Standard Deviation의 1/10였다(표 1 참조).

두 연구자는 그들의 자료를 통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세 가지 이론

표 1. 이혼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의 여러 가지 안녕 상의 비교: 평균효과크기(Mean Effect Sizes), 실패-안전 사례 값(Fail-Safe N Values)

안녕 영역	사례수(연구)	평균효과크기	실패-안전사례
성적	39	-.16	855
품행	56	-.23	3,474
심리적 적응	50	-.08	464
자아-개념	34	-.09	111
사회 적응	39	-.12	506
모-자 관계	22	-.19	212
부-자 관계	18	-.26	456
기타	26	.06	

주. 사례 수는 독립적 샘플을 토대로 한 효과크기의 수를 나타냄. 부정적 효과크기는 이혼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안녕 상에 점수가 낮았음을 말함.

을 검증했다. 그 이론은 1) 아버지의 부재 이론, 2) 경제적 불리 이론, 3) 가정갈등 이론이다. 그 결과 아버지 부재의 자녀가 다른 두 통제 집단에 비해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 아버지 부재이론은 긍정되었다. 경제적 불리 이론은 전반적으로 약한 지지를 얻었다. 예컨대 이혼가정과 정상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면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작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 이론은 가장 큰 지지를 얻었다. 정상가정이라도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면 그것이 자녀의 행복에 주는 부정적 효과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이 지지되었다.

국내의 연구결과

국내의 연구도 Amato & Keith(1991)가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만을 택하기로 했다. 그 결과 김

남숙(1993)과 권영미(1999)의 두 논문만이 선정기준에 부합했다. 김남숙의 연구는 그 대상이 서울의 중학생으로서 여자중학교 7개, 남자중학교 2개 도합 9개교였다. 남녀중학교에 각기 120부씩 240부를 배포한 결과 총 227부가 회수되었다(95%). 이중 이혼가정은 41명(남자 3명, 여자 38명)이었고 일반가정은 145(남자 20명, 여자 125명)이었다. 김남숙의 연구는 중학생 이혼가정 중 여학생에 관한 조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혼가정의 남학생은 오직 3명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아존중감(Rosenberg 척도 번안), 상태-특성 불안, 생활만족도(Olson 척도 번안), 사회성(Hudson 척도 번안)의 심리적 요인을 조사했고 이외에 이혼에 따른 문제를 포함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상에서 이혼가정의 여학생이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그 점수가 낮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삶의 만족도에서도 이혼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사회성과 상태-특성불안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권영미의 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으로서 대구 7개교, 충남 8개교에서 담임교사를 통해 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담임교사가 연구자에게 알려주어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된 이혼가정의 학생을 위해 200부를 배포했고 163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0%). 일반가정의 학생에게는 250부를 배포하여 229부가 회수되었다(92%). 그러나 분석에 이용된 학생수는 이혼가정이 148명(남자 84명, 여자 64명), 일반가정이 198명(남녀는 밝히지 않았음)이었다.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심리학적 변인을 조사했다. 하나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최보아와 전귀연이 번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성검사로써 이종승이 제작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모두에서 일반가정의 초등학생이 이혼가정의 초등학생보다 존중감과 사회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양호했다.

국내의 두 연구는 사실 척도제작자만 서로 달랐을 뿐 조사내용은 엇비슷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 연구가 모두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성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연구를 소개한 이유는 그 조사대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김남숙의 경우는 그 대상이 중등학생이었고 이혼가정의 자녀는 여자가 대부분이다. 반면 권영미의 경우 초등학생이 그 대상이며 이혼가정의 자녀는 남·여 초등학생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 두 연구를 종합하면 여중학생 초등학생 남·녀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비교적단인 일반가정의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성의 경우는 김남숙의 경우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영미의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차이가 조사대상간의 차이에서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한 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고 앞으로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김남숙의 경우는 이혼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이 여중생이었으므로 이 연구결과가 여중생이란 특수집단에 한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앞에 언급한 외국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거기에서는 자아개념을 조사하여 한국의 두 연구자가 조사한 자아존중감과 비슷한 것을 조사했다. 외국에서도 이혼 가정의 자녀들의 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한국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한국의 두 연구자와는 달리 사회성만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사회적 적응력을 조사했다. 만일 사회성을 성격기질로 간주하여 측정했다면 이혼이 사회성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성을 외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사회적 능력과 같은 것으로 측정했다면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혼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혼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국내와 외국에서 똑같이 발견되었다. 다만 국내의 연구결과는 여중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단점이 있다.

정리한다면 한국에서도 이혼이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여자 중학생)에게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사회성의 경우는 여자중학생의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러나 남·녀 초등학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성의 경우는 그 척도가 사회성을 어떻게 간주하고 측정했는가 즉 선천적 기질 또는 후천적 학습된 사회성으로 측정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논 의

외국의 비해 한국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 즉 이혼가정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자녀를 동시에 양적으로 비교 조사한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아직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막은 미지수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체계적인 연구로 간주된 두 한국 연구도 한 연구는 이혼가정의 자녀의 표집이 여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 본 개관연구결과는 심리학에서 이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여덟 가지 조사영역 중 일곱 가지 모두에서 이혼가정의 자녀가 일반가

정이 자녀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추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많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법학자들이 한국에서 이혼가정이 갖는 어려움이 외국에 비해 더 절실함을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다. 즉 최근 한 시민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혼의 한국적 현황 그리고 원인, 대책(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에서 한국에서 이혼이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 외국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 중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애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이혼가정의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비양육자에게 부과하나 이것의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많은 이혼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부부가 이혼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자녀의 부모방문권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 설사 이혼 후 부모와 결별되어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 방학기간 중 몇 주 친부모와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이혼가정의 자녀가 갖는 심리적 타격은 상당히 격감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부모방문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혼부모 특히 이혼녀가 갖는 문제가 크다. 즉 양육권이 여자에게 그리고 친권이 남자에게 가는 경우 그 자녀는 입학 시 등 친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 항상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동거인으로 남게 된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혼자녀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자녀는 언제든지 그들이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넷째 외국에서는 이혼자녀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친권을 누가 갖던 현재 자녀가 기거하던 주택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무조건 양도하는 것을 법원이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혼부부의 재산분할권에 따라 자녀가 기거하던 가족이 반으로 쪼개져 자녀가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자녀의 생계도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맡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따로 지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히 이혼부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체납하는 경우 양육자가 국가에 자녀생계비를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지불하고 나중에 자녀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게 강제로 징수한다.

위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철저한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아직 이혼가정의 자녀가 갖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외국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다. 앞에서 심리학자의 이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이들이 심리학적 문제 외에 다른 문제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이혼가정이 갖는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권, 가정방문권, 호주문제 등 제반 실 생활여건적 문제도 아울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미 (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남숙 (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미간행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태련 (2003). 가정위기의 현황과 위험요소. 미간행 논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제 36차 심포지엄 발표논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03). 이혼의 한국적 현황 그리고 원인, 대책

이훈구 (2001).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서울: 이야기.

이훈구 (2003).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미간행 논문. 2003년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채규만 (2003). 이혼사례 유형별 분석, 원인과 대책. 미간행 논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제 36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0. No. 1, 26-46.

Glueck, P.,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Commonwealth Fund.

1 차원고접수일 : 2003. 8. 21.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1. 18.

A review study on the impact of divorce upon children's well-being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study on the impact of divorce upon children's well-being presented in both abroad and Korea.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the study for the review are as follow; The study must have a comparative child group of non-divorced family and include at least one psychological variable that are measured quantitatively. Two studies are found in Korea and 92 in abroad. Both the domestic studies and foreign studies indicate the lower self-esteems of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than those of children of non divorced families. In domestic study, the sociable was found as the variable that give a negative impact to the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among elementary population but not to the children of middle school. In contrast, the studies of foreign showed the negative impact of the seven psychological variables included in the studies upon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impacts of divorce on the children will be more pronounced in Korea than in abroad and the necessities of the studies in the future in Korea.